

2022 한국 ESG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 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

2022 한국 ESG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 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

보고서 작성: 이다연, 김태한, 김민아, 이종오, 정승혜
디자인: 화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 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 TCFD, PACF, RE100, EV100,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용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치고 기업에서 투자 및 채권·자산·신탁운용을 담당하고 2016년에 카카오뱅크 공공대표를 맡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경제와 금융분야의 실무를 거친 경제전문가다. 2020년, 국회에서 ESG채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1년·2022년 국정감사에서 ESG활성화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SG금융백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ESG투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백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목차

발간사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3

본문

Executive Summary	4
01 ESG금융 전체 현황	6
02 ESG대출	10
03 ESG투자	13
04 ESG금융상품	16
05 ESG채권발행	19
06 국민연금의 ESG투자	22
07 분류체계와 금융공시	24
08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론	26
부록. ESG금융 응답기관	27

Disclaimer

© 2022 KoSIF All Rights Reserved. 본 백서의 내용은 이용우 의원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신뢰하는 출처로부터 취득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정확성 및 완전함이 전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분석 보고 및 의견들은 KoSIF 고유의 자료이고 복제·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 Morningstar, Inc. and Morningstar Korea Limited All Rights Reserved. 본 백서의 내용 중 ESG공모펀드(사회책임투자 공모펀드)에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분석보고는 모닝스타 고유의 자료이고, 복제·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는 사기다 ESG is a scam” “ESG는 공익을 해치는 위험한 위약이다 ESG is a dangerous placebo that harms the public interest” 전자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S&P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가 제외되자 반발하며 트위터에 남긴 글이고, 후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전 지속가능투자 최고 책임자인 타리크 팬시(Tariq Fancy)가 USA 투데이에 기고한 글입니다.



머스크와는 달리 타리크 팬시는 ‘광범위한 ESG 위상’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ESG를 놓고 정치권이 가세해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반^{ESG}ESG 법안’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친^{ESG}ESG 법안’을 내놓는 등 수십 개 주에서 정치적 성향과 지역의 산업 이해 등에 따라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묶어 ESG의 퇴조를 말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그러한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ESG의 지속가능성’을 언급하며 ‘post-ESG’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ESG는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ESG가 해결할 수 없다면, ESG는 다른 용어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ESG’라는 용어보다는 그 용어를 부상시킨 ‘시대의 얼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을 위하여 어떤 확고한 원칙 아래 어떤 효과적인 수단과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사회적 책임^{SR}은 ESG의 확고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없는, ‘위험과 기회’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투자자 중심의 ESG는 부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본을 지속가능성으로 대입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해야 합니다. ESG는 그런 점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CSR의 원칙하에 ESG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용우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으로 두 번째 ‘한국 ESG 금융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ESG 규모와 방식(ESG투자, ESG대출, ESG금융상품, ESG채권)을 전수조사(공적금융+민간금융)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는 유일한 백서입니다. 우리는 ESG에 대한 최근의 회의론과 비판론에 주목합니다. 이를 현상으로 수용하고 이제 우리도 그린워싱·ESG워싱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제도·정책 구축과 감독기구 설립, ESG 공시 표준화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ISO 26000과의 보완 등 ESG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국내 ESG 금융시장의 성장세를 상세히 기술한 이 백서를 통하여 양질 동시 제고의 필요성을 드러내 주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787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11조원인 2020년 대비 약 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ESG투자, ESG대출, ESG금융상품, ESG채권(금융권+비금융권)이라는 4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공적금융보다는 민간금융이 더 높았습니다. ESG 금융이 민간금융에서 자리잡고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바람직한 추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2022년 말에는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역사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지속가능성의 길은 이미 나있는 두 갈래 길이 아니라 개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 수립되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요소 외에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전 세계 225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모인 “기후행동 100+ 이니셔티브”가 발족하게 되면서 ESG투자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렇듯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각국에서는 ESG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 ESG활동 성과에 대한 공시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기관들도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SG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며 ESG금융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ESG펀드에 대한 일관성있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펀드 및 투자자문사에게 공시규칙 및 보고양식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ESG금융 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지만 2021년 12월에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ESG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ESG생태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ESG금융 공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 12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ESG금융 전체 현황을 최초로 연구한 ESG 금융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두 번째 ESG금융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2022 ESG금융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ESG금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ESG금융 영역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ESG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28%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ESG생태계 조성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ESG를 선도하는 공적기금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예·적금, 보험, 카드 등 다양한 ESG금융상품의 성장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ESG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ESG 금융에 대한 기준 정립과 정보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ESG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규모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ESG금융 정보이용자가 ESG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비교하여 이에 기반한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를 통해 ESG금융 공시기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 ESG생태계가 잘 마련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ecutive Summary

■ ESG금융 전체 현황

-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 ESG금융 규모는 787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성장
- 유형별로는 대출 340조원, 투자 272조원, 금융상품 77조원, 채권발행 98조원. 모든 ESG금융 유형은 2020년 대비 최소 15% 이상 성장 (대출 19%, 투자 38%, 금융상품 37%, 채권발행 38%)
- ESG금융 규모는 공적금융이 411조원으로 민간금융보다 50조원 더 컸으나, 전년 대비 증가액은 민간금융이 더 높음 (전년대비 증가액: 민간 107조원, 공적 56조원)
- 공적금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연금의 규모가 전체 공적금융의 68% 차지. 민간금융은 은행섹터가 전체 민간금융의 70% 차지. 전체 ESG금융에서 공적금융은 전년 대비 16% 성장했으며, 민간금융은 42% 성장

■ ESG대출

- 국내 ESG대출 규모는 2017년 대비 104%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0%
- ESG대출 유형은 기업대출 191조원, 개인대출 127조원, PF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기업대출이 47% 성장
- 기업대출은 기술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사회(S)영역의 규모가 전체 ESG기업대출의 69% 차지

■ ESG투자

- 2017년 대비 847% 성장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투자자산 유형별로는 채권 146조원, 주식 100조원, 대체투자 26조원으로, 채권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78조원으로 크게 증가함 (성장률: 113%)
- 국민연금과 은행 섹터의 채권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함. 국민연금의 경우, 2019년에 발표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명시된 ESG투자 적용자산군 확대 계획의 이행에 따라 2021년 채권 투자를 ESG투자에 포함함

■ ESG금융상품

- 2017년 대비 293% 높은 성장 폭을 보이고 있음
- 금융상품 규모는 예·적금 41조원, 보험 18조원, 펀드(리테일) 14조원, 카드 3조원. 모든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ESG펀드(리테일)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318%로 가장 높음
- 2021년 ESG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공모와 사모펀드 판매 급증이 성장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ESG채권발행

- 채권발행 유형별로는 사회적채권 65조원, 녹색채권 18조원, 지속가능채권 14.8조원. 전년 대비 성장률은 녹색채권이 885%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비금융기관은 2020년 대비 녹색채권 발행규모 및 건수를 늘림. 이는 높은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채권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의 ESG투자

- 국민연금의 2021년 기준 운용자산규모는 949조원으로 그중 ESG투자 비중은 14% 차지 (국민연금: 130조원)
- 국민연금은 전체 ESG투자의 48%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8% 성장 (2021년 ESG투자 규모: 272조원)
- 국민연금은 ESG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022년 8월 말 운용기금 규모 (917조원)를 2022년 규모로 가정한다면, ESG투자규모는 458조원으로 예상됨. 약속을 이행하자면, 국민연금은 2021년 대비 약 300조원 이상의 규모를 2022년 ESG투자로 전환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이행 여부는 미지수임.
- ESG생태계 조성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절대적임. 그러나 국민연금은 ESG생태계 조성에 여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임.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는 양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ESG 시장 조성을 위한 역할(기업의 ESG정보공개 요구 역할, ESG위탁운용 활성화 등)에는 소극적임

■ ESG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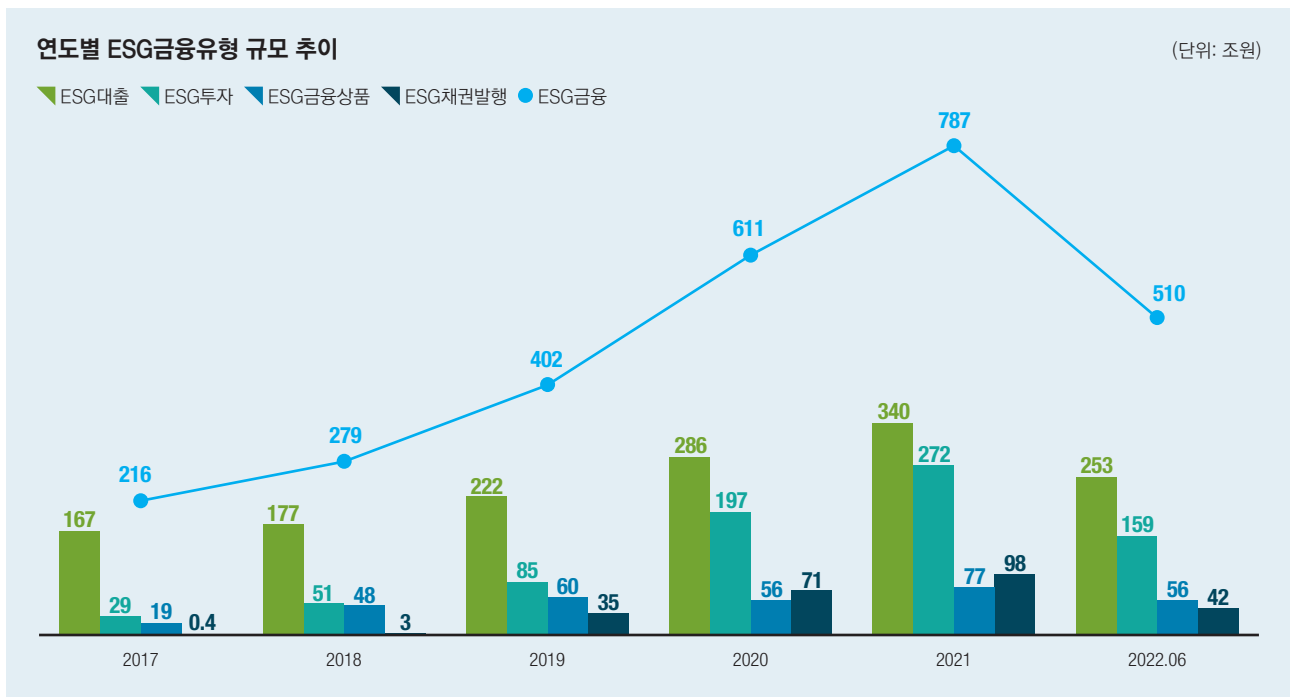
- ESG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도 많은 금융상품이 보고되고 있었음. ESG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 또한 금융기관별로 달라 여전히 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함
- EU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일환으로 2021년 3월부터 펀드상품을 시작으로 금융공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SEC에서는 투자자에게 ESG펀드에 대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규칙 및 보고양식 개정을 제안함
- 한국도 금융감독원에서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ESG금융상품 생애주기^{Life-cycle} 맞춤형 감독 실시'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음.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예·적금, 보험, 카드 등을 ESG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펀드 이외의 금융상품의 정의 및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함

01 ESG금융 전체 현황

ESG금융 규모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 ESG금융 규모는 786.9조원

- 응답기관 전체 운용자산 대비 ESG금융 비중은 12%로 지속 증가 추세
(2017년: 5%, 2018년: 6%, 2019년: 7%, 2020년: 10%)
- 국내 ESG금융 규모는 2017년 대비 265%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9%
- 2022년 6월 말 기준, ESG금융 규모는 509.9조원. 하반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이 2022년 ESG금융 유형별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ESG금융 유형별

모든 ESG금융 영역에서 최소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금액 기준으로는 ESG투자 (74.9조원 증가)가, 성장률 기준으로는 ESG투자와 ESG채권발행이 각 3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ESG대출** | 규모 340.05조원 | 전체 대출자산 대비 ESG대출 비중 13% | 전년 대비 성장률 19%
 - 사회(S) 관련 ESG대출이 전체의 79%로 매우 높은 비중 차지 (환경(E): 65.8조원, 사회(S): 268.1조원, ESG통합: 6.1조원)
 - 사회(S) 관련 대출에는 전월세대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등의 주택금융, 코로나19 소상공인 자금대출, 중소기업수출자금융자, 동반성장대출, ESG 우수기업대출 및 기술금융 등이 보고됨
 - 재생에너지 대출은 27조원으로 환경(E) 관련 대출의 41%를 차지

[ESG금융 유형 분류 기준]

ESG금융 유형은 대출, 투자(사회책임투자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금융상품, 채권 발행으로 분류

ESG금융상품 및 채권발행의 경우, 중복 계상의 우려가 있으나, 대다수 금융기관에서 두 유형에 대한 규모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어 ESG금융 유형에 포함하여 분류

금융 유형	세부분류
ESG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대출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ESG투자 (사회책임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군별: 주식 / 채권 / 대체투자 지역별: 국내 / 해외
ESG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원수보험료 예/적금: 수신금액 카드: 카드 사용액 펀드(리테일): 펀드 판매액
ESG채권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기관: 금융권 / 비금융권 발행유형: 녹색 / 사회적 / 지속가능채권 채권발행금액

- **ESG투자** | 규모 272.2조원 | 전체 투자자산 대비 ESG투자 비중 10% | 전년 대비 성장률 38%
 - 2021년 ESG투자 성장은 채권투자가 견인. 채권투자는 전년 대비 77.7조원 증가, 주식투자는 5.9조원 감소
 - 국민연금과 은행сек터의 채권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 (전년 대비 채권투자 증가액: 국민연금 38.2조원 / 은행сек터: 19.4조원)
 -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ESG투자를 채권투자에도 적용했으나 주식형 ESG 규모는 오히려 9.3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ESG금융상품** | 규모 76.6조원 | 전년 대비 성장률 37%
 - 예·적금 상품은 사회(S) 비중이 93%. 반면, 보험과 카드는 환경(E) 비중이 각각 94%, 73%로 나타남
- **ESG채권발행** | 규모 98.01조원 | 전년 대비 성장률 38%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37.8조원으로 국내 ESG채권 발행액의 39%를 차지
 - 비금융기관의 ESG채권발행 규모도 크게 확대 (15.3조원, 전년 대비 786% 성장)
 - 금융기관은 사회적채권 중심 (76%), 비금융기관은 녹색채권 중심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63%)

금융섹터별

ESG금융 규모는 공적금융 410.9조원(53%), 민간금융 360.6조원(47%)으로 공적금융이 컸으나, 전년 대비 증가액은 민간이 높음 (민간증가액: 106.6조원 / 공적증가액: 55.7조원)

- **공적**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연금이 각각 150.2조원, 130.2조원으로 약 68% 차지
 - 전년과 마찬가지로 두 기관이 공적금융 전체 ESG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10% 하락 (2020년 비중: 76% / 한국주택금융공사: 167.6조원, 47% / 국민연금: 101.3조원, 29%)
 - 국민연금 (증가액: 28.8조원, 증가율: 28%), 산업은행 (12.08조원, 31%), 중소기업은행 (11.9조, 120%), 한국수출입은행(7.4조, 83%) 등의 ESG금융 규모가 늘어났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17.4조, -10%)와 예금보험공사(-0.48조, -29%)는 감소
- **민간** | 민간금융의 전체 ESG금융 규모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70%)이나, 비은행권의 ESG금융도 큰 폭으로 성장
 - 은행сек터의 ESG금융 규모는 253.3조원으로 전년 대비 32% 성장했으며, 전체 민간 ESG금융의 70% 차지 (2020년: 76%)
 - 증권사(125%), 손해보험(62%) 및 생명보험(52%)은 전년 대비 5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ESG투자 및 투자 관련 상품 판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특히 증권사의 경우, ESG금융상품 판매 금액이 전년 대비 8.0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SG 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 증가가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금융섹터별 ESG금융 규모*

(단위: 조원)

	ESG금융 전체규모		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공적금융	355	411	172	184	118	156	4	6	61	65
민간금융	254	361	114	156	79	116	52	70	9	18
은행	192	253	103	140	44	64	39	43	6	7
생명보험	26	40	8	11	17	27	0.4	0.3	-	1
손해보험	20	33	2	3	8	13	10	16	-	0.1
증권	9	21	1	2	6	8	2	10	-	1
자산운용	3	4	-	-	3	4	-	0.0002	-	-
기타금융	3	9	-	-	-	-	-	-	3	9
기업	2	15	-	-	-	-	-	-	2	15
합계	611	787	286	340	197	272	56	77	71	98

* 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금융기관별

금융기관별 ESG금융규모는 한국주택금융공사(150.2조원), 국민연금(130.2조원), NH농협은행(92.6조원), 우리은행(58.9조원), 산업은행(50.5조원) 순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61% (482.5조원) 차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체 ESG금융 금액의 99%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및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등 주택 관련 대출 및 사회적채권발행이 차지. 전년 대비 ESG채권발행 규모는 22%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내 전체 ESG채권발행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39%)은 높은 수준
-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는 13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 2021년은 채권(38.2조원)에도 ESG 반영하여 투자를 시작했으나, 주식투자는 오히려 감소 (2020년: 101.3조원 → 2021년: 92조원)
- **신한은행**은 주요 금융사 가운데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성장세(338%)를 보임 (2020년 8.1조원, 2021년 35.7조원). 신규 ESG금융 규모 증가와 더불어 TCB(기술신용평가대출) 등 기존 대출에 대한 내부 분류기준 변경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 됨
- **중소기업은행**의 ESG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1.9조원. ESG투자금액은 2배 가량 증가했으며, ESG채권발행액은 8배 증가. 2021년 ESG채권발행 규모는 7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어 국내 2위
- **한국수출입은행**의 ESG대출은 전년 대비 92%의 큰 성장 폭을 보임. 환경(E) 관련 대출은 전체 대비 54% 차지하며, 기업대출의 비중은 98%로 압도적

금융기관별 ESG금융 규모*

(단위: 조원)

	ESG금융 전체규모		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	150	119	112	0.03	0.49	-	-	49	38
국민연금	101	130	-	-	101	130	-	-	-	-
NH농협은행	79	93	44	45	6	10	28	37	1	1
우리은행	46	59	36	48	5	9	4	1	1	1
KDB산업은행	38	51	34	44	3	3	-	-	1	3
신한은행	8	36	3	27	4	6	0.4	1	0.4	1
KB국민은행	27	28	8	12	10	12	6	2	4	2
중소기업은행	10	22	3	4	5	8	1	2	1	7
한국수출입은행	9	16	7	14	0.14	0.14	-	-	1.6	2.3
하나은행	15	16	9	5	6	10	0.2	0.4	-	0.4

*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민간 5대 금융그룹

5대 금융그룹의 ESG금융 규모는 263.5조원으로 전체 ESG금융의 33% 차지. 전년 대비 금액은 32% 성장했으나, 비중은 전년과 동일. 5대 금융그룹 내 은행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은행 규모 및 성장률이 금융그룹에 큰 영향을 미침

- **NH농협금융그룹(6)** | 규모 113.9조원 | 전년 대비 18% 성장 | 그룹별 운용자산 대비 비중 19% | 은행 비중 81%
 - ESG대출(47.6조원)과 ESG금융상품 판매(36.8조원)가 전체의 74% 차지. 보고된 주요 대출은 소상공인금융(17조원), 기술금융(17조원), ESG금융상품은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36조원)
 - 비대대출성 자산, 특히 ESG투자 규모는 5.6조원 증가하여 눈에 띈. NH농협은행(3.3조원), 농협중앙회(2.5조원), NH농협생명보험(1조원)의 ESG채권투자 규모 전년 대비 증가
- **우리금융그룹(3)** | 규모 59.3조원 | 전년 대비 27% 성장 | 그룹별 운용자산 대비 비중 15% | 은행 비중 99%
 - 우리은행의 ESG대출은 전년 대비 32%(11.5조원) 증가한 47.5조원. 주요 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28조원), 기술금융(8조원)
 - ESG투자 규모는 채권투자(3.7조원) 증가로 전년 대비 73% 상승
- **신한금융그룹(4)** | 규모 39조원 | 전년 대비 298% 성장 | 그룹별 운용자산 대비 비중 7% | 은행 비중 91%
 - 신한금융그룹의 ESG금융 규모는 5대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줌
 - 신한은행의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4.3조원 증가(764%). 기업대출이 25.1조원 증가, 채권투자가 1.6조원 증가
- **KB금융그룹(4)** | 규모 34조원 | 전년 대비 11% 성장 | 그룹별 운용자산 대비 비중 6% | 은행 비중 83%
 - KB금융그룹의 ESG투자는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한 14.1조원. 은행과 손해보험의 채권투자가 각각 2.2조원, 0.2조원 증가함
 - ESG대출은 전년 대비 3.9조원 증가. 기업대출은 5.8조 증가했으나, 개인대출은 2.4조원 감소
- **하나금융그룹(2)** | 규모 17.1조원 | 전년 대비 4% 성장 | 그룹별 운용자산 대비 비중 4% | 은행 비중 94%
 - 하나은행의 ESG투자는 전년 대비 85% 성장. 채권투자는 5조가량 증가한 반면, 주식은 소폭 감소 (0.02조원 감소)

5대금융그룹의 ESG금융 규모*

(단위: 조원)

금융그룹별 (보고기관 수)	ESG금융 전체규모		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NH농협금융그룹(6)	96	114	45	48	23	28	28	37	1	1
우리금융그룹(3)	47	59	36	48	6	10	4	1	1	1
신한금융그룹(4)	10	39	3	27	6	9	0.4	1	0.4	1
KB금융그룹(4)	31	34	9	13	11	14	6	2	4	2
하나금융그룹(2)	16.5	17.1	10	5	7	11	0.2	0.4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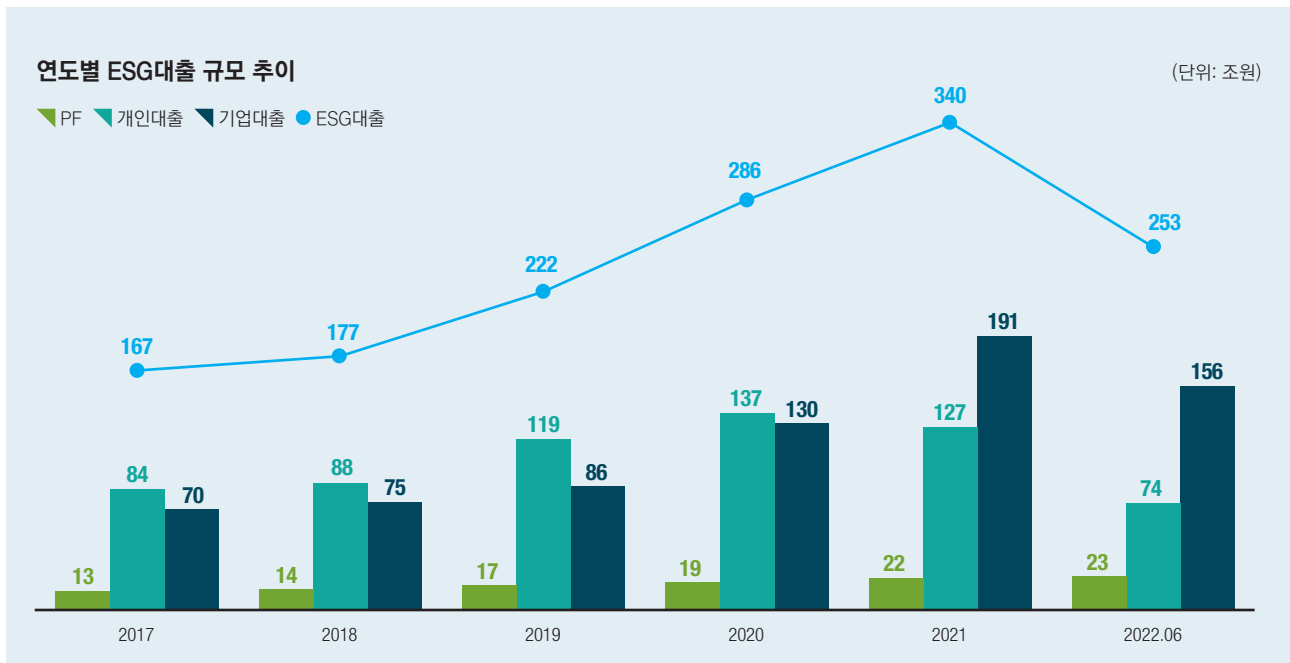
*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02 ESG대출

ESG대출 규모

2021년 기준 ESG대출 규모는 340조원. 전년 대비 19% 성장 (증가액: 53.5조원)

- 국내 ESG대출 규모는 2017년 대비 104%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0%
- 응답기관의 대출 관련 운용자산 총액 대비 ESG대출액은 13% (2017년: 8.9%, 2018년: 8.8%, 2019년: 10%, 2020년: 12%)
- 2022년 6월 말 기준, ESG대출 규모는 252.8조원.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¹ 인상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채권발행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늘릴 것으로 판단됨. 이는 ESG대출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말 ESG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ESG대출 유형별

사회(S)영역의 총 대출액은 268.1조원으로 전체 대비 79% 차지. 환경(E)영역은 65.8조원 (19%), ESG통합은 6.1조원 (2%)

- **기업대출** | 규모 191.2조원 | 전체 ESG대출 대비 비중 56% | 전년 대비 성장률 47%
 - 기업대출의 경우, 기술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사회(S)영역이 전체 69% 차지. 환경(E)은 57.7조원으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대출이 보고됨
- **개인대출** | 규모 126.7조원 | 전체 ESG대출 대비 비중 37% | 전년 대비 성장률 -7%
 - 개인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2조원 감소.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관련 대출이 전년 대비 7% (7.9조원) 감소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PF** | 규모 22.1조원 | 전체 ESG대출 대비 비중 7% | 전년 대비 성장률 16%
 - PF에는 재생에너지, 사회인프라 구축, 주택공급 등과 관련된 대출이 다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대출은 6조원이며, KDB산업은행의 재생에너지 PF 비중은 전체 재생에너지 PF 대비 48% 차지

1. 2022년 10월 12일 기준, 기준금리 3%

ESG대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시설투자 목적의 대출 뿐만 아니라 대출심사에 ESG 요소를 반영 또는 ESG관련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포함함

유형	사례
개인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홀씨 / 사잇돌중금리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녹색업종 영위 기업대출 / 기술신용평가대출/ 코로나19 금융지원
PF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 고속도로, 학교 등 사회인프라 구축사업

금융섹터별

공적금융의 ESG대출 규모는 183.6조원으로 총 대출액 중 ESG대출액 비중은 29%, 민간금융의 ESG 대출 규모는 156.4조원 (총 대출액 중 ESG대출 비중 9%)

- **공적** | 공적금융의 ESG대출 비중은 개인대출 59%, 기업대출 34%, PF 7% 차지
 -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금융 ESG대출의 절반 이상(61%, 111.9조원)을 차지
 - 산업은행 (증가액: 8.7조원, 증가율: 34%), 수출입은행 (6.6조원, 93%), 중소기업은행 (1조원, 56%)의 기업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공적금융 전체 기업대출이 36% 성장
 - 공적금융의 환경(E)영역 총 ESG대출액은 34.9조원으로 전체 대비 19% 차지. 환경(E)에서 기업대출은 99% 비중 차지하며, 그 가운데 산업은행이 63% 차지.
- **민간** |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모든 민간금융 섹터의 기업대출 성장률은 40% 이상.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 (39조원 증가)이, 성장률 기준으로는 생명보험(139%)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민간금융은 기업대출이 전체 ESG대출 대비 82% 차지.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119.2조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
 -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5.2조원 증가. 그 가운데 기술금융, 고용창출과 관련된 대출의 비중이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규모의 84% 차지 (22조원)
 - 민간금융의 환경(E) 관련 대출은 전체 ESG대출액 중 20%에 그침. 기업대출과 PF가 각각 75%, 21% 차지하며, 공적금융과 마찬가지로 환경(E) 관련 대출은 기업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금융섹터별 ESG대출 규모*

(단위: 조원)

	ESG대출 전체규모		기업대출		개인대출		PF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공적금융	172	184	46	63	116	108	10	12
민간금융	114	156	84	128	21	18	9	10
은행	103	140	80	119	21	18	2	2
생명보험	8	11	2	5	-	-	6	7
손해보험	2	3	1	3	-	-	1	1
증권	1	2	1	1	-	-	0.12	0.23
자산운용	-	-	-	-	-	-	-	-
기타금융	-	-	-	-	-	-	-	-
합계	286	340	130	191	137	127	19	22

*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금융기관별

금융기관별 ESG대출 규모는 한국주택금융공사(111.9조원), 우리은행(47.5조원), NH농협은행(45.1조원), KDB산업은행(44.3조원), 신한은행(27.4조원)으로,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81% (276.3조원) 차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대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전체 ESG대출의 30% 이상을 차지. 한국주택공사 ESG대출의 95%는 주택금융신용보증, 보증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개인대출로 보고 됨
- **우리은행**은 전년 대비 32%(11.5조원) 늘었으며, 코로나19금융지원, 기술금융 등 사회(S) 관련 기업대출의 증가(10조원)가 주요 성장 원인
- **KDB산업은행**의 ESG대출은 전년 대비 10.4조원 가량 증가. 그 가운데 8.7조원이 기업대출로 나타났으며, 산업은행의 기업대출은 녹색·그린 품목 관련 사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대출이 전체 63% 차지
- **신한은행**의 ESG대출은 전년 대비 764% (24.2조원 증가)의 큰 성장 폭을 보임. 기업대출이 25.1조원 늘었으며, TCB(기술신용평가) 대출이 ESG기업대출의 75% 차지
- **중소기업은행**은 지속가능성연계대출원칙(SLLP,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의 ESG성과와 금리를 연동하는 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 (2022년, 규모 500억원)

금융기관별 ESG대출 규모*

(단위: 조원)

금융기관명	ESG대출 전체규모		기업대출		개인대출		PF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한국주택금융공사	119	112	2	3	115	107	2	2
우리은행	36	48	29	40	6	7	1	1
NH농협은행	44	45	42	42	2	3	0.1	0.1
KDB산업은행	34	44	26	35	-	-	8	10
신한은행	3	27	1	26	2	1	0.4	0.3
한국수출입은행	7	14	7	14	-	-	0.1	0.1
KB국민은행	8	12	4	9	4	2	0.3	0.8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6	6	6	6	-	-	-	-
하나은행	9	5	3	-	6	5	0.4	-
교보생명보험	4	5	0.1	0.2	-	-	4.1	4.4

*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03 ESG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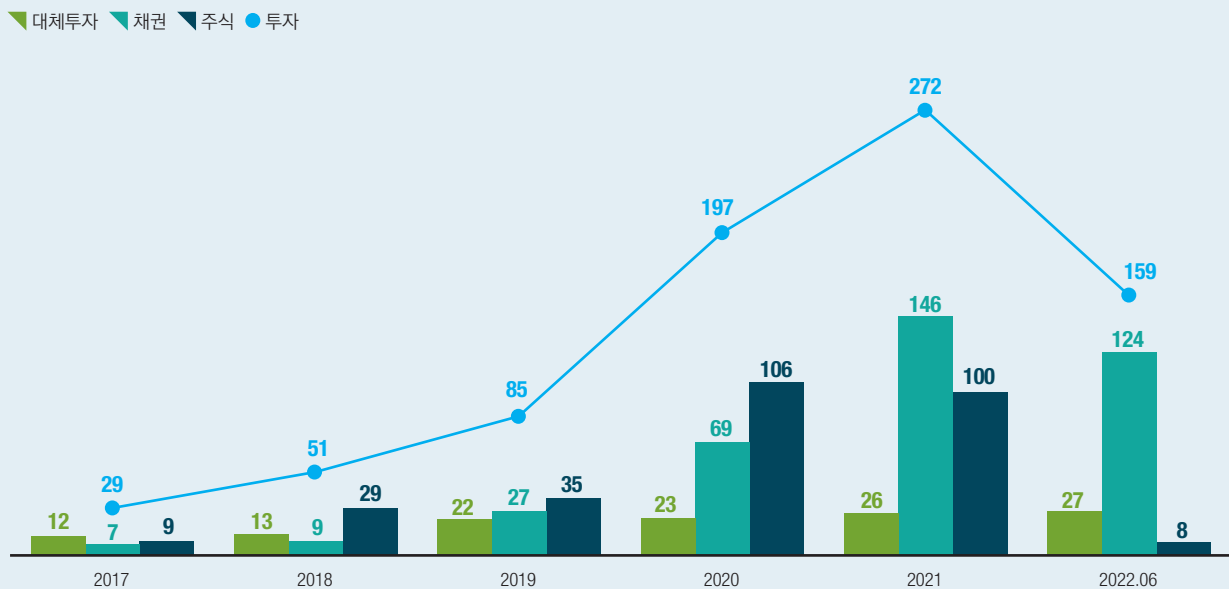
ESG투자 규모

2021년 기준 ESG투자 규모는 **272.2조원**, 전년 대비 **38% 성장** (증가액: 74.9조원)

- 국내와 해외 ESG투자 비중은 각 95%(258.9조원), 5%(13.3조원). 국내 ESG투자는 채권투자 비중이 높았으며, 해외는 대체투자 비중이 더 높음 (국내: 채권 55%, 주식 38%, 대체투자 7% / 해외: 대체투자 54%, 채권 39%, 주식 7%)
- 2017년 대비 847% 성장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79%. 202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연도별 ESG투자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금융섹터 및 자산유형별

자산유형별로는 채권 146.3조원, 주식 100.2조원, 대체투자 25.7조원으로, 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전년 대비 113% 성장).
공적금융은 주식 중심(주식: 95.1조원, 채권: 58.4조원), 민간금융은 채권 중심(주식: 5.05조원, 채권: 87.8조원)으로 ESG투자

- **공적** | 공적금융기관의 전체 ESG투자 규모는 156.06조원으로 이 가운데 83%를 국민연금(130.2조원)이 차지
 - **국민연금**의 2021년 ESG투자액은 130.2조원(자산대비 비중: 13.7%)으로 주식이 92조원, 채권이 38.2조원으로 나타남. 2020년 대비 각각 9.3조원 감소, 38.2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채권투자 증가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명시된 ESG투자 적용 자산군 확대 계획의 이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은행(7.86조원), 우정사업본부(5.09조)의 ESG요소를 반영한 채권투자 금액이 대폭 확대
 - 주요 연기금 가운데는 사학연금 ESG투자 규모 증가가 눈에 띈. 2021년 ESG투자액은 9,012억원 (자산대비 비중: 4%)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임 (4,084억, 82.9% 증가). 주식이 4,561억원, 채권은 3,908억원, 대체투자 543억원으로 채권이 전년 대비 197% 증가 (2,594억원 증가).
 - 공무원연금의 2021년 ESG투자 규모는 4,059억원 (자산대비 비중: 5%)으로 전년 대비 845억 증가(26.3% 증가). 주식이 2,869억원, 채권은 1,190억원으로 모두 소폭 증가

금융섹터별 ESG투자 규모*

(단위: 조원)

	ESG투자 전체규모		주식		채권		대체투자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공적금융	118	156	104	95	13	58	2	2
민간금융	79	116	3	5	56	88	21	23
은행	44	64	1	1	42	61	1	2
생명보험	17	27	0.2	1	7	15	10	12
손해보험	8	13	0.2	0	2	4	6	8
증권	6	8	1	2	3	6	3	1
자산운용	3	4	1	2	2	2	0.5	1
기타금융	-	-	-	-	-	-	-	-
합계	197	272	106	100	69	146	2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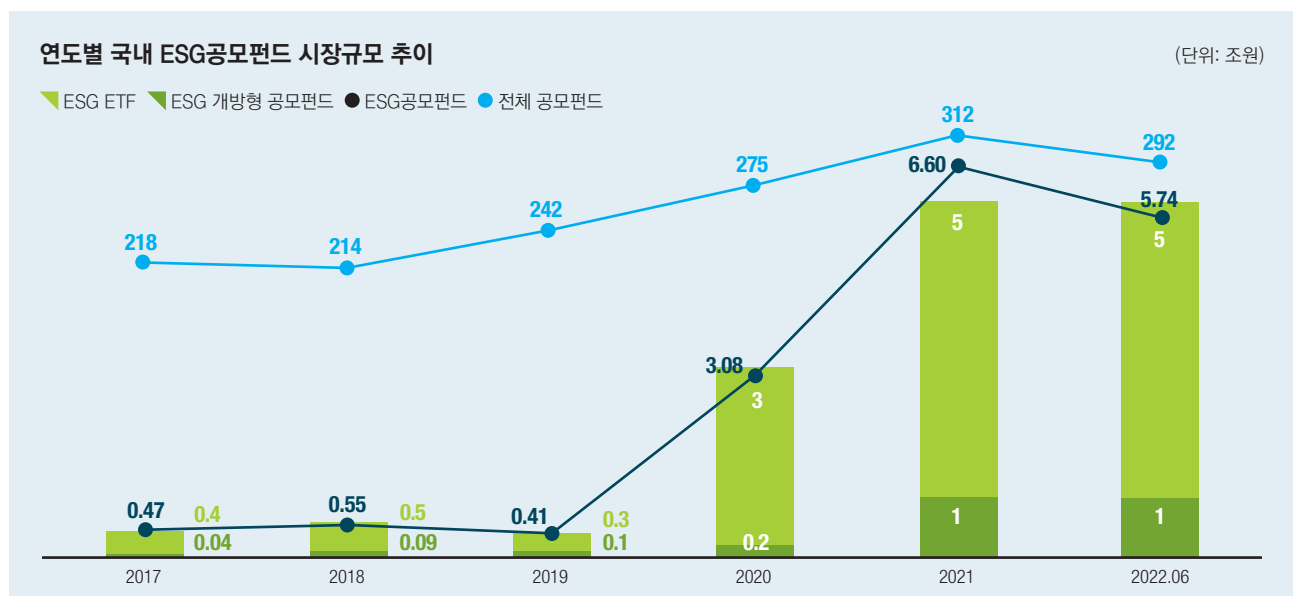
*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민간** | 민간금융기관의 전체 ESG투자금액은 116.2조원으로 채권 비중이 76%. 모든 섹터에서 ESG를 반영한 채권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ESG 적용 대체투자 규모도 23.3조원으로 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
 - 은행섹터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ESG를 고려한 채권투자를 전년 대비 2배 가량 확대
 - 보험사는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ESG 반영이 활발하며, 교보생명(4.3조원), 한화손해보험(2.67조원), DB손해보험(2.19조원)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증권사의 ESG채권투자 규모는 3.2조원 증가. 그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증가액이 2.1조원으로 전체 채권투자 증가액 대비 66% 차지

ESG공모펀드¹ 규모

2021년말 기준 국내 ESG공모펀드² 설정액은 6.6조원. 전년 대비 114% 성장(증가액: 3.51조원)

- ESG공모펀드 규모는 전체 공모펀드 대비 2.1% 차지. 2017년 0.2%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ESG공모펀드 비중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상황
- 2021년 신규 설정된 펀드 수는 47개(순자산총액: 1.49조원)로,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함 (2020년 신규 설정 펀드 개수 13개, 신규 설정 규모 0.35조원). 그 가운데 45%(12개)가 기후변화와 클린에너지와 관련된 ETF. 2022년 6월 말 기준, 신규 설정 펀드는 18개(0.2조원)



1. 국내 ESG공모펀드 데이터는 모닝스타코리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2. ESG공모펀드: ESG개방형 공모펀드와 ESG ETF 합친 규모

자산운용사별

2021년 말 기준, 35개 자산운용사에서 147개 펀드(개방형, ETF 포함) 운용. 전년 대비 자산운용사와 ESG펀드 개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2020년: 자산운용사 31개 / ESG펀드 84개)

- 과거 국내 ESG펀드 시장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주식형 ESG 펀드를 필두로 주식형 펀드가 대세였으나,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ESG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운용사들이 일반채권펀드를 ESG 채권펀드로 변경함. 이에 2020년과 달리 자산운용사별 ESG공모펀드 시장 점유율이 변경됨
- 한국투자자산운용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ESG공모펀드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이는 기존 일반채권펀드에 ESG전략을 추가하면서 펀드 이름이 ESG펀드로 변경되어 운용사의 ESG펀드 규모가 자동으로 커져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전년 대비 한국투자자산운용의 시장점유율이 10.8% 감소. 이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감소됨. 마이다스책임투자펀드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2021년에 신규 설정된 마이다스프레스티지 책임투자 채권펀드로 자금이 들어와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줌. 삼성자산운용은 2021년 ESG관련 ETF 출시를 하면서 자산규모가 늘은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사별 ESG공모펀드 시장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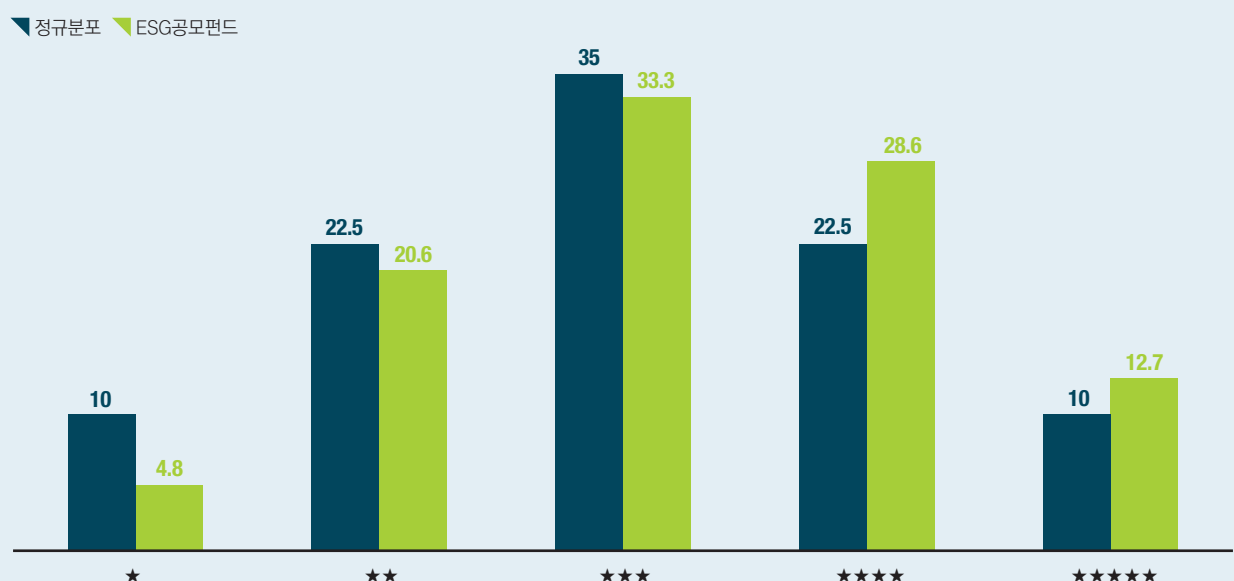
순위	자산운용사	시장점유율	
		2021	2020
1	한국투자자산운용	23.5	34.3
2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16.9	11.1
3	KB자산운용	8.0	5.6
4	삼성자산운용	7.9	4.3
5	NH-Amundi자산운용	6.4	5.4
6	미래에셋자산운용	5.5	2.2
7	한화자산운용	5.0	2.8
8	슈로더투자자산운용	4.3	2.1
9	우리자산운용	4.2	13.6
10	멀티에셋자산운용	4.0	4.3

스타등급별 현황

- 모닝스타는 펀드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를 '스타등급^{Star Rating}'으로 표현. 리스크조정수익률을 같은 유형에 속한 펀드와 비교하여 1~5개 스타 중 하나를 부여함. 리스크조정수익률이 높은 펀드일수록 높은 등급으로 분류됨
- ESG공모펀드 중 3년 스타등급을 받은 펀드를 대상으로 ESG공모펀드 스타등급 분포 분석
- 2022년 7월 말 기준, ESG공모펀드의 스타등급은 스타등급의 정규분포에서 할당된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음. 이는 ESG공모펀드의 리스크조정수익률이 같은 유형에 있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 리스크조정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ESG 공모펀드의 성과는 최근 몇 년간 개선되어 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모닝스타 스타등급별 ESG공모펀드 분포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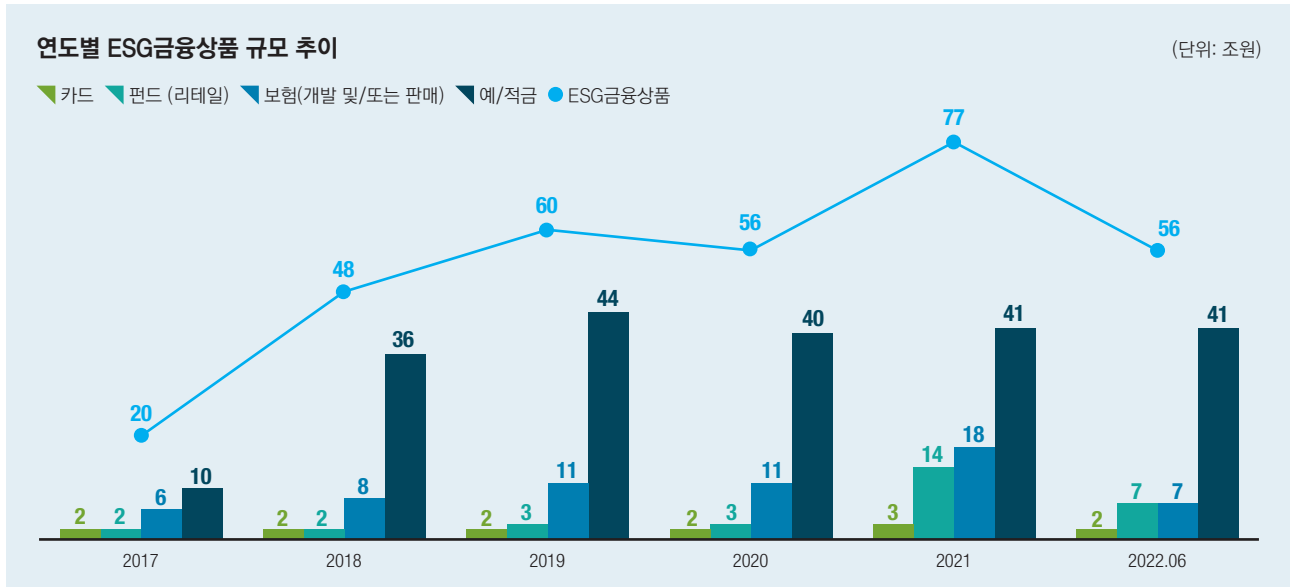
1. 2022년 7월말 기준

04 ESG금융상품

ESG금융상품 규모

2021년 기준 ESG금융상품 규모는 76.6조원, 전년 대비 37% 성장 (증가액: 20.5조원)

- 2017년 대비 293%의 높은 성장 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0%
- ESG금융상품은 모든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가운데 ESG펀드(리테일)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짐
- 2022년 6월 말 기준, ESG금융상품 규모는 56.1조원. 2022년말 ESG금융상품 규모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어 ESG금융상품 유형별 판매액이 전년 대비 감소 될 가능성이 높아짐



ESG금융상품 유형 및 기관별

ESG금융상품 판매액(잔액)은 예·적금 41조원, 보험 18조원, 펀드(리테일) 14조원, 카드 3조원. ESG예·적금은 전체 ESG금융상품의 54% 비중을 차지. ESG펀드(리테일)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음 (펀드(리테일) 318%, 보험 67%, 카드 34%, 예·적금 4%)

- **예·적금** | ESG예·적금상품 규모 41.3조원 | 금융상품 건수 82건 | ESG금융상품 대비 비중 54%
 - NH농협은행 예·적금상품 규모는 35.9조원으로 전체의 86.8% 비중 차지. 전년 대비 32% 성장함 (증가액: 8.7조원)
 - 82건 예·적금 상품 가운데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상품 1건의 규모는 35.6조원. 전체 ESG예·적금상품의 86.1% 차지
 -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상품을 제외한 ESG예·적금상품 규모는 5.7조원

ESG예·적금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원)

기관명	규모		주요상품
	2020	2021	
NH농협은행	27	36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법사랑플러스, NH농심-농부의 마음 등
중소기업은행	0.8	2	IBK늘푸른하늘통장, IBK사랑나눔적금, IBK국민연금안심통장, 등
우정사업본부	2.1	1.3	이웃사랑정기예금, 우체국소상공인정기예금, 행복지킴이통장 등

● **보험** | ESG보험상품 규모 18.3조원 | 금융상품 건수 205건 | ESG금융상품 대비 비중 24%

- 2021년 ESG보험상품 규모는 2017년 대비 약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전년 대비 7.3조원 증가함 (2017년: 6.02조원)
- 자동차보험 관련 ESG보험상품 규모는 15.3조원으로 전체의 84% 비중 차지

ESG보험 순위 및 주요 상품

기관명	규모		주요상품
	2020	2021	
DB손해보험	1.42	5.45	주행거리 특약, 에버그린(전자매체활용 약관·증권발송) 특약,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안전 운전 UBI 특약 등
현대해상화재보험	3.34	3.82	품질인증부품사용 특약, Hicar Green 서비스 할인 특약,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특약 등
삼성화재해상보험	2.76	2.96	Eco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

● **펀드(리테일)** | ESG펀드상품 판매 규모 14.2조원 | 금융상품 건수 661건 | ESG금융상품 대비 비중 19%

- ESG펀드상품 판매액은 전년 대비 10.82조원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함. 그 가운데 증권사가 전년 대비 8.05조원 증가한 10.2조원으로 2021년에 큰 성장세를 보임. 이는 ESG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 증가가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보고된 ESG펀드 상품 가운데 사모펀드는 50건이며, 그 규모는 3.72조원으로 2020년 대비 2.61조원 증가함

ESG펀드(리테일)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원)

기관명	규모		주요상품
	2020	2021	
하이투자증권	0.00	4.60	교보약사ESG알파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J-11호[채권], 한국투자 크레딧포커스 ESG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 브이아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미래에셋증권	0.63	3.01	ETF(전기차/2차전지), ETF(친환경), 펀드(친환경)
KB국민은행	0.51	1.68	한국투자글로벌별전기차&배터리증권투자신탁(주식),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 KB코리아뉴딜증권투자신탁(주식)

● **카드** | ESG카드상품 규모 2.7조원 | 금융상품 건수 30건 | ESG금융상품 대비 비중 3%

- ESG카드판매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전년 대비 증가액: 0.69조원)
- 2021년 ESG카드상품 규모를 E/S/G 이슈별로 구분하면, 환경(E) 73%(1.9조원), 사회(S) 27%(0.73조원)로 나타남. 보고된 카드상품 가운데 환경(E)과 관련된 상품은 21건으로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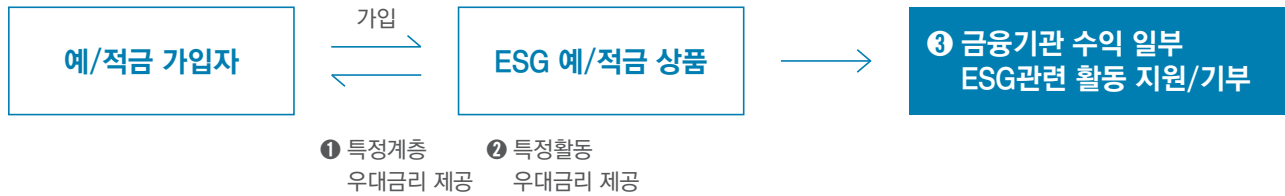
ESG카드 순위 및 주요 상품

기관명	규모		주요상품
	2020	2021	
우정사업본부	0.13	1.19	행복한 체크카드,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 스타트 체크카드 등
부산은행	0.65	0.69	그린카드, 동백전 체크카드, 그린기업체크카드 등
NH농협은행	0.33	0.37	에코카드 외 3종,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외 2종

ESG금융상품 유형별 세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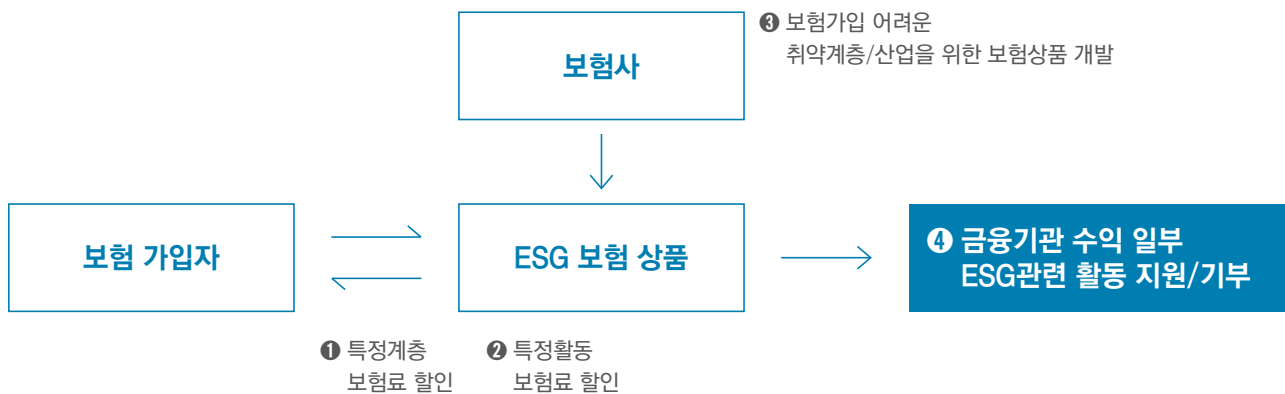
예·적금

예·적금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ESG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예·적금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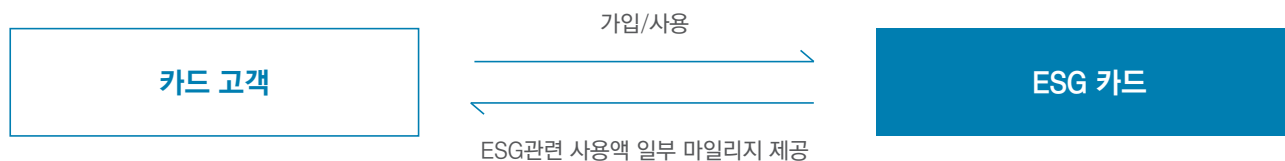
보험

보험료 수익의 일부를 ESG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보험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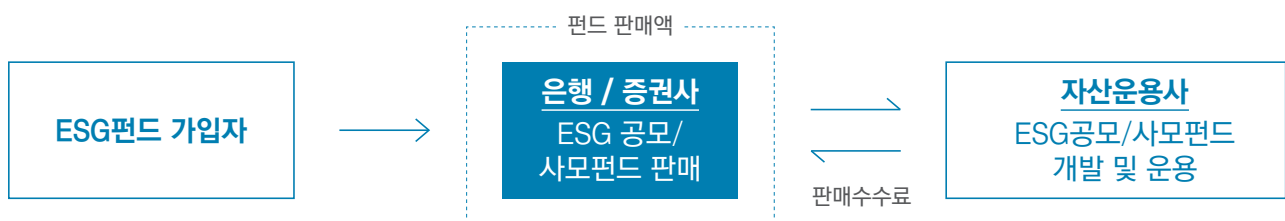
카드

ESG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



펀드(리테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ESG펀드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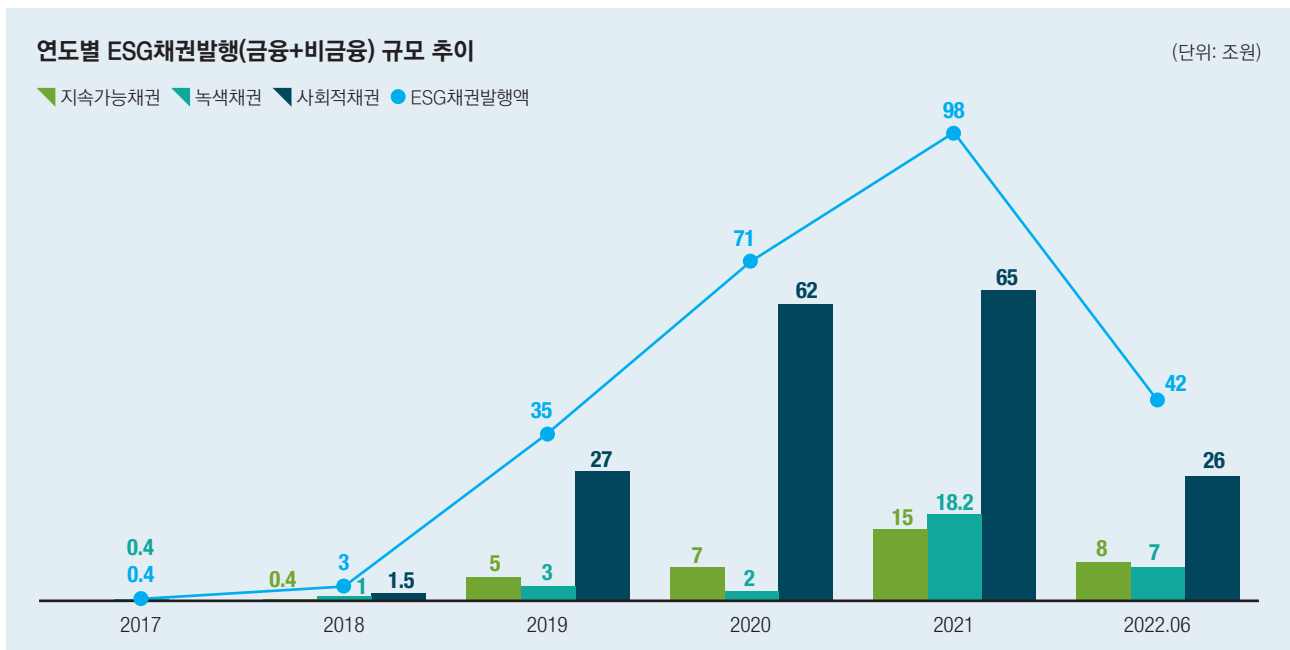


05 ESG채권발행

ESG채권발행 규모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ESG채권발행 규모는 **98.01조원**. 전년 대비 38% 성장 (증가액: 26.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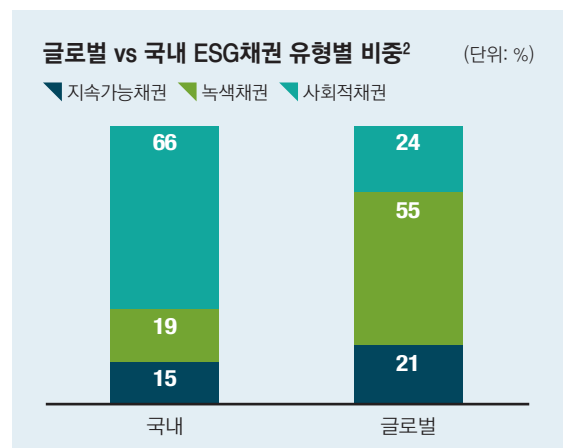
- 국내 ESG채권발행액은 2017년 대비 약 200배 이상 성장
- 2022년 6월 말 기준, ESG채권발행 규모는 42.2조원. 2022년에도 지속 성장할 거라 예상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거래량 감소, 발행기관 감소 등으로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있음. 이는 ESG채권발행에도 영향을 주어 2022년 ESG채권발행액은 202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및 글로벌 ESG채권 규모

국내 ESG채권은 사회적채권 규모가 전체 ESG채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글로벌 ESG채권발행¹은 녹색채권의 비중이 더 높음

- 국내 ESG채권 유형별 발행액은 사회적채권 64.9조원, 녹색채권 18.2조원, 지속가능채권 14.8조원으로 사회적채권의 비중이 66%인 반면, 글로벌 ESG채권은 녹색채권이 전체의 55% 차지 (녹색채권: 5,277억 달러, 사회적채권: 2,232억 달러, 지속가능채권: 2,002억 달러)
- 글로벌의 경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투자의 기회가 국내보다 많아 녹색채권의 비중이 다른 채권 유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1. Climate Bond Initiatives (2022), Sustainable Debt, Global State of the Market 2021

2. 글로벌에서 지속가능채권, Transition 채권 규모 제외 (지속가능채권: 1,188억 달러, Transition 채권: 4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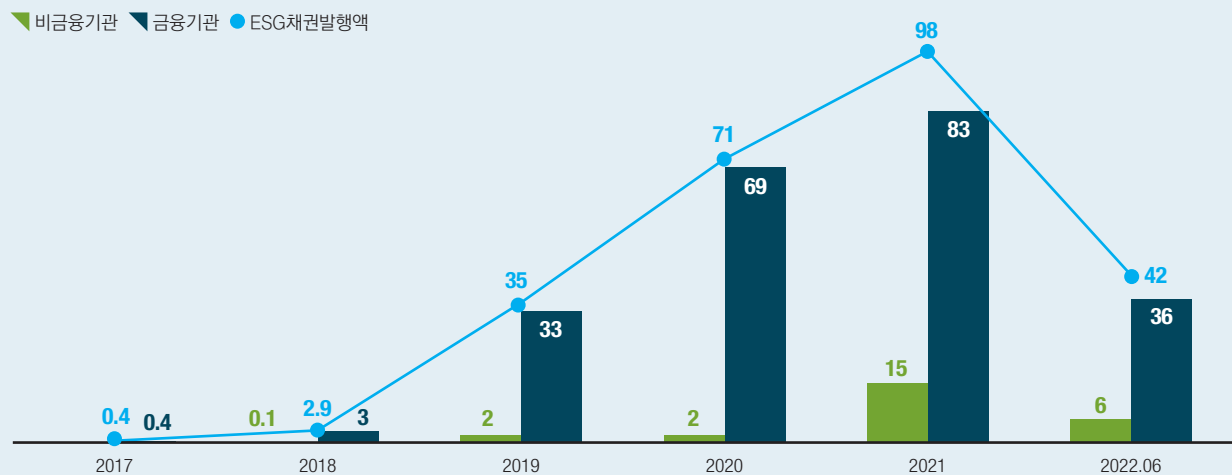
채권발행 유형별

2021년 금융권의 ESG채권발행 규모는 82.6조원(비금융권 15.3조원). 채권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은 사회적채권 76%, 비금융권은 녹색채권 63%로, 전년 대비 성장률과 증가액이 금융권보다 비금융권이 더 높음 (비금융권: 786%(성장률), 13.6조원(증가액) / 금융권: 19%, 13.2조원)

- **녹색채권**은 전년 대비 16.3조원 증가했으며, 다른 유형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증가액을 보이고 있음
(전년 대비 증가액: 지속가능채권 8.1조원, 사회적채권 2.5조원)
- 2020년 녹색채권을 발행한 건수는 금융기관이 많았지만, 2021년은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보다 약 2.5배 이상 더 많이 발행한 것으로 보고됨(비금융: 95건, 금융: 34건). 2021년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관과 발행 건수는 비금융기관이 더 많음(비금융: 46개, 금융: 16개)
- 비금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규모가 2021년에 급증한 요인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편이 기업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됨
- **사회적채권**의 공적금융 규모는 58.9조원으로, 전체 사회적채권의 91%. 그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7.8조원으로 전체 대비 64% 차지함
- 사회적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녹색채권과는 달리 금융기관이 22개, 비금융기관이 8개. 발행 건수 또한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보다 14배 이상 더 많이 발행한 것으로 보고됨 (발행 건수: 금융 435건 / 비금융 30건)
- **지속가능채권**발행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 0.4조원 / 2019년: 5조원 / 2020년: 6.8조원)
- 지속가능채권의 투자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사회(S)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더 많은 투자금액이 조달되고 있음(사회(S): 54%, 환경(E):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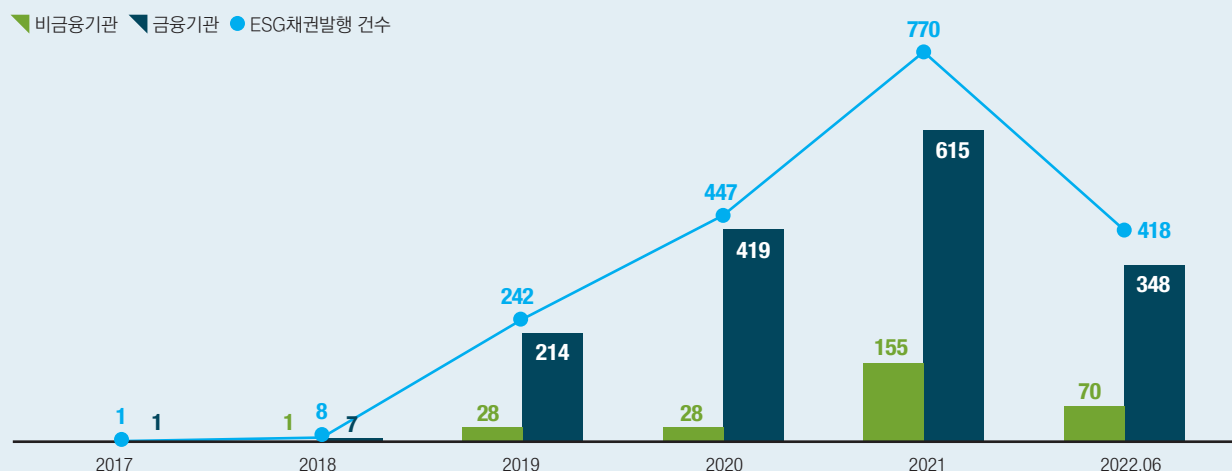
(금융/비금융) 연도별 ESG채권발행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금융/비금융) 연도별 ESG채권발행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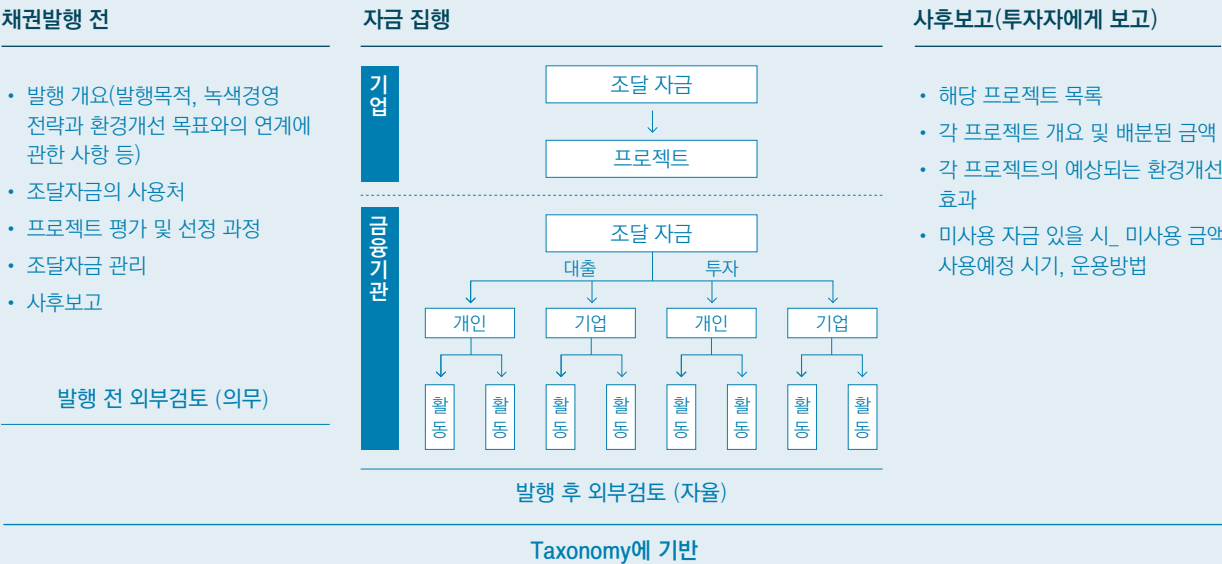
(단위: 건)



국내 ESG채권발행 유형별 세부설명

채권 유형	세부내용
녹색채권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사회적채권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

ESG채권발행 프로세스



06 국민연금의 ESG투자

국민연금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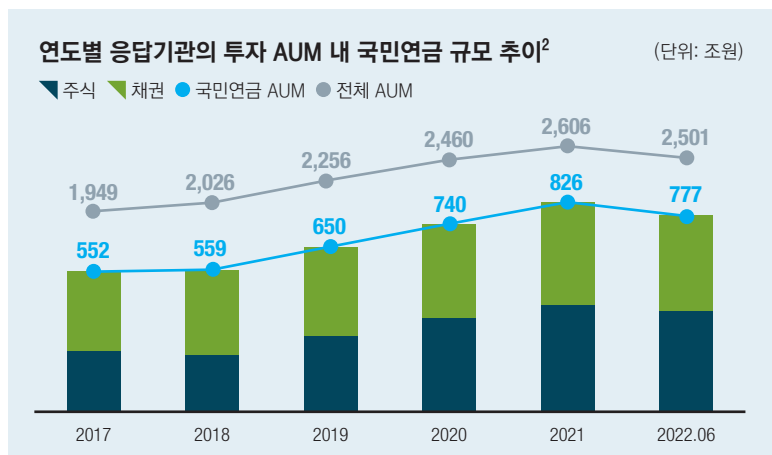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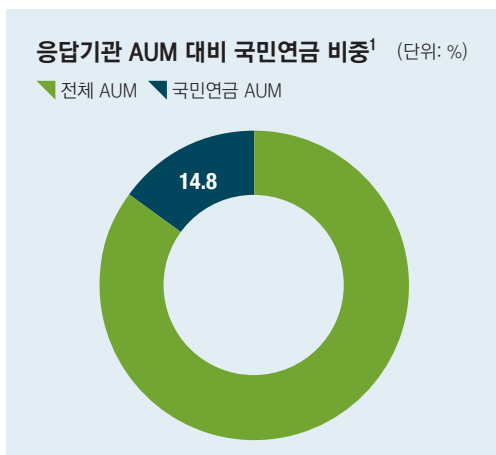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응답기관의 전체 자산운용자산(AUM) 대비 15% 비중 차지

- 2021년 말 기준, 응답기관 전체 자산운용규모(AUM) 6,402조원. 전년 대비 7% 증가 (2020년: 5,981조원)
- 국민연금의 2021년 AUM은 948.7조원으로 2017년 대비 약 300조원 이상 증가.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응답기관 AUM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13.3%, 2018년: 13%, 2019년: 13.7%, 2020년: 13.9%, 2021년: 14.8%)
- 국민연금의 2021년 국내외 주식 및 채권투자 규모 826.3조원.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금액은 317.9조원으로 전년 대비 47.1조원 증가. 2022년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규모는 430.2조원으로, 위탁운용의 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의 ESG투자

2021년 국내 ESG투자 규모는 272조원으로 국민연금의 비중은 전체의 48%.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ESG투자액을 전체 운용자산의 50%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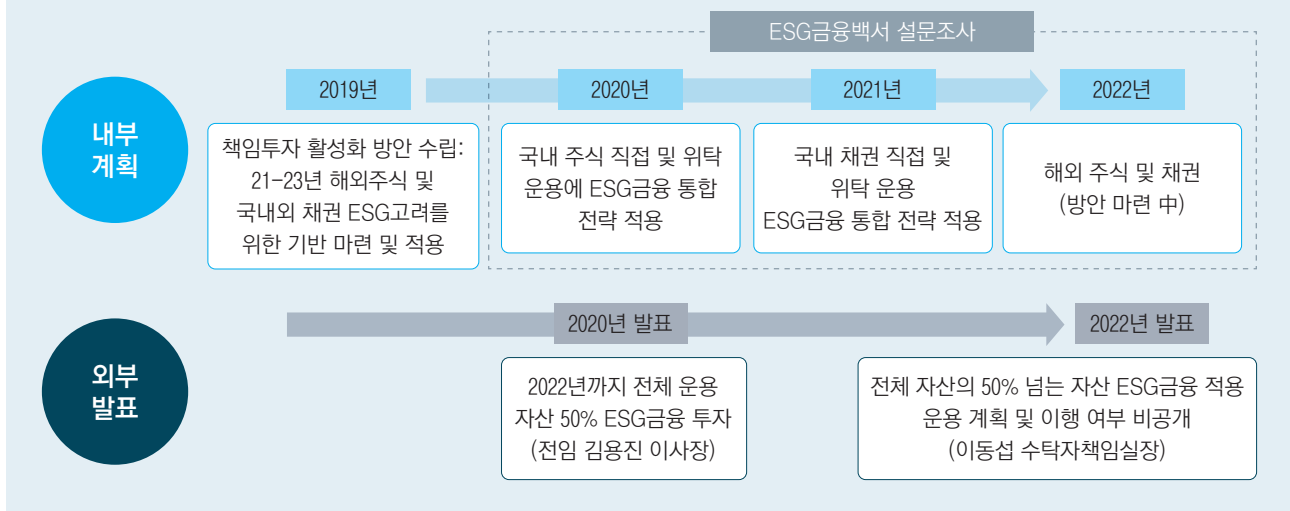
-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는 130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성장 (증가액: 29조원). 유형별로는 주식 92조원, 채권 38조원으로, 2020년 대비 주식은 9조원 감소했으며, 채권은 38조원 증가함
- ESG채권투자액 증가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19.11월)'에 명시된 ESG투자 적용자산군 확대 계획의 이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ESG주식투자액의 경우,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서 해외 주식투자는 늘리는 대신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ESG주식투자 규모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은 ESG금융백서 설문조사를 통해 ESG금융 목표연도를 2023년이라 밝혔으나, 목표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내주식 직접 및 위탁운용(2020년), 국내채권 직접운용(2021년), 해외주식 및 채권(2022년 방안 마련 중)으로 적용 자산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 2020년 11월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인 '2020 ESG 글로벌 서밋'에서 국민연금의 전임 김용진 이사장은 "2022년까지 ESG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군 규모를 전체 운용자산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2022년 7월 'KRX ESG포럼 2022'에서 국민연금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이 기조발제에서 'ESG투자 대상 자산군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전체 운용자산의 50% 넘는 자산물이 ESG투자에 적용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힘



1. 2021년 말 기준

2. 설문지에 응답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

국민연금 ESG금융 목표 및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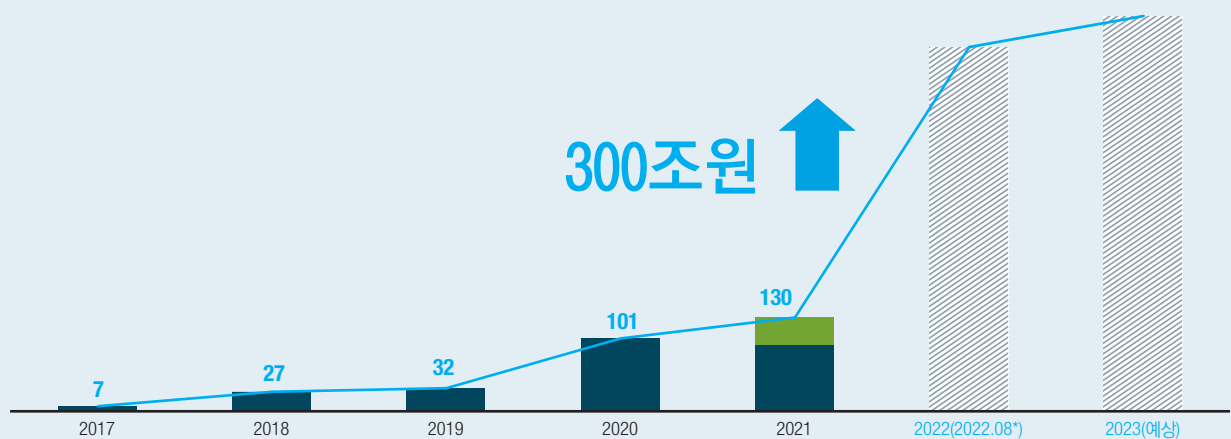


- 2022년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기금 규모는 917조원. 만약 2022년 말 국민연금의 운용기금 규모를 917조원으로 가정한다면, ESG 투자 규모는 최소 458조원(전체 운용자산의 50%)으로 예상됨. ESG투자 규모가 이대로 이행된다면, 국민연금은 2021년 대비 약 300조원 이상의 규모를 ESG투자자로 운용해야 함.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ESG투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등과 같은 세부이행계획(목표 금액, 자산군별 투자 비중, 규모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은 여전히 ESG생태계 조성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민연금의 ESG투자는 2020년부터 빠른 속도의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ESG시장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있음
- 첫째, 기업의 ESG정보공개에 대한 역할 부재. 기업의 ESG정보는 ESG투자자의 핵심으로, 노르웨이연기금, 블랙록과 같은 해외연기금 및 운용사는 기업에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반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가장 소극적 형태인 TCFD 지시기관 및 CDP 서명기관 참여 등을 통한 정보공개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음. 국내 최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ESG 정보공개 요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ESG투자 확대를 선언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내 ESG시장 전체의 발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ESG위탁운용 생태계 조성 역할 부족.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은 국내 ESG투자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함. 실제로 다수의 민간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펀드운용을 목표로 ESG공모펀드 개발, ESG평가사와 협력 등을 진행해옴. 하지만 2021년 국민연금의 ESG위탁운용 규모는 7.7조원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의 6% 비중 차지. 전년 대비 ESG투자 규모는 28% 성장한 반면, ESG위탁운용은 3.8% 감소함(2020년 위탁운용 규모: 8조원 / 2021년: 7.7조원). 이처럼 국민연금의 ESG위탁운용이 지금과 같은 더딘 성장을 이어간다면, 국내 ESG투자 시장 생태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의 ESG투자규모 예상 추이

(단위: 조원)

■ 주식 ■ 채권 — ESG투자규모



* 2022년 8월 말 기준, 917.2조원으로 가정

07 분류체계와 금융공시

분류체계 현황

금융기관의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ESG금융 정책의 시작점은 ESG금융 분류체계 구축과 적용임

-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ESG활동에 대한 관심과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ESG 위상(또는 그린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ESG위상 기업들을 제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ESG 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ESG 목적에 부합한 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함. 각국의 분류체계 개발은 2020년 EU의 분류체계 초안이 발표된 이후 박차를 가함. 한국도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원전을 포함한 개정은 금년 말에 이루어질 예정임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여부를 조사했으며, 66개(공적 11개, 민간 55개)기관이 적용계획이 있다고 밝혔음. 공적금융기관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ESG투자 가운데 환경(E)에 해당하는 활동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 기준 등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SG통합전략을 적용하는 ESG투자는 서로 무관하다고 답함
- 사회분류체계의 경우, EU에서 먼저 소셜택소노미(Social Taxonomy) 최종안을 2022년 2월에 발표함. 한국은 2022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임. 한국형 사회분류체계는 산업부에서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개발되었던 수순을 반영해보면,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나면 한국형 소셜택소노미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에서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76개(공적 14개, 민간 62개)금융기관이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10개 이상의 기관은 가이드라인 내용이 발표된 이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투자대상기관의 ESG성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ESG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ESG금융유형(대출, 금융상품, 채권발행)에서 사회^S관련 금융활동은 73%(금액 기준)로 매우 높은 비중 차지. 지속 성장하는 ESG금융이 ESG위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한국형 소셜택소노미 개발이 시급함

ESG위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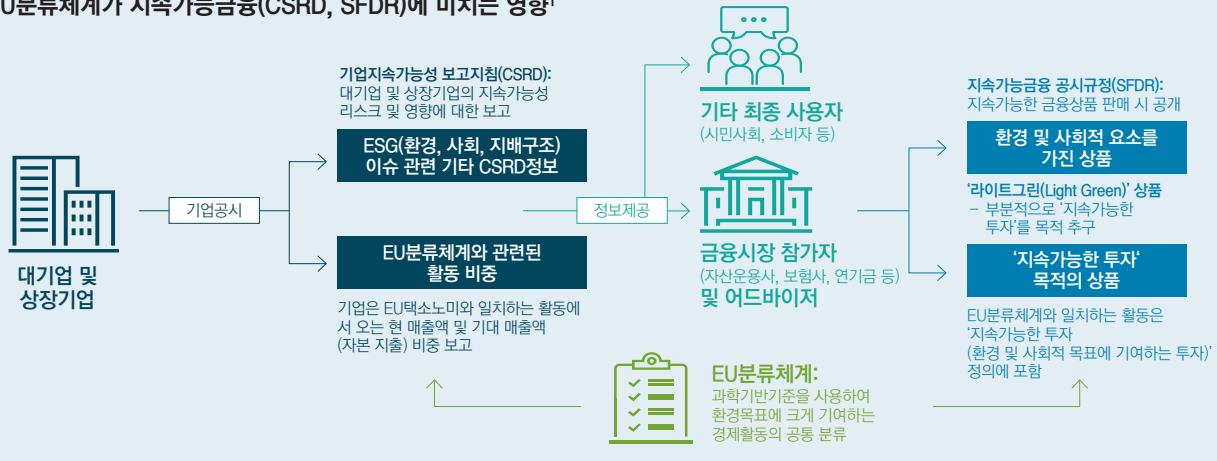
해외

- 1) HSBC: '고객들이 넷제로로 전환하도록 1조달러 제공할 것', '12만톤의 탄소를 가두기 위해 나무 200만 그루를 심을 것' 등의 허위광고 게시함
- 2) J.P. Morgan: ESG경영 선언을 하고 녹색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화석연료 관련 투자는 줄이지 않음
- 3) BNY Mellon: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릴 때 ESG고려사항을 왜곡 기술하거나 누락함

국내

- 1) A 금융회사는 복합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같이 환경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사회경제적 발전 및 기반 지원으로 구분하여 보고함
- 2) B 금융회사는 건물 매입비용 및 취득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환경(E)으로 보고함

EU분류체계가 지속가능금융(CSRD, SFDR)에 미치는 영향¹



지속가능금융공시

ESG분류체계, ESG기업공시에 이어 ESG금융공시에 대한 기준 및 규제 필요

- 최근 ESG정보공개에 대한 주요국의 기업공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EU는 2021년 4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하면서 ESG공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IFRS재단도 2021년 11월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해 공통된 글로벌 ESG공시기준 마련 중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후 관련 공시규칙을 2022년 3월에 발표하면서 올해 안으로 기후공시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국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또는 ESG보고서) 공시를 KOSPI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임
- 기업공시뿐만 아니라 금융공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함. 금융공시는 금융기관의 자금이 ESG목적에 맞는 활동에 제대로 투자되었는지를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함. EU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일환으로 2021년 3월부터 펀드상품을 시작으로 금융공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SEC에서는 투자자에게 ESG펀드에 대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규칙 및 보고양식 개정을 제안함
- 한국은 ESG 관련 감독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 마련 등과 같은 'ESG금융상품의 생애주기(Life-cycle) 맞춤형 감독 실시' 업무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포함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음. 현재 국내 금융기관은 예·적금, 보험 등을 ESG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펀드 이외의 금융상품의 정의 및 공시기준 마련 필요

EU SFDR 체계²

금융기관의 투자, 금융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금융회사 단위 Entity-level		금융상품 단위 Product-level
금융시장 참가자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공시	어드바이저 Financial Advisor 공시	금융시장 참가자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공시
웹사이트에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 통합에 대한 정보(관련이 없는 경우, 이유 설명)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보고서 PAIs를 고려할 때, 금융시장 참가자의 실사를 포함한 보고서(관련이 없는 경우, 이유 설명) 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는 PAIs 의무 공시 계약 전 공시(관련이 없는 경우, 이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투자 결정에 통합되는 방식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금융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 	웹사이트에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또는 보험 조인에 대한 지속가능성 리스크(PAIs 포함) 통합에 대한 정보(관련이 없는 경우, 이유 설명) 계약 전 공시(관련이 없는 경우, 이유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투자 또는 보험 조인에 통합되는 방식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금융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웹사이트에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상품(Article 9) 또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는 금융상품(Article 8)에 대한 정보 정기 보고서에 지속가능한 투자 목적 또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정보 제공

1. 출처: European Commission, How does the EU taxonomy fit within the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2. 출처: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08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론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론

- **조사 대상** | 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방법** |
 - 공적 금융기관: 국회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부처에 설문지 발송
 - 민간 금융기관: 국회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자료 취합
 - **조사 내용** |
 - 조사기간: 2022년 8월 - 9월
 - 대상자산군: 자산현황, ESG금융현황, 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 ESG금융 목표 및 활성화
 - **설문 응답기관** |
 - 총 167개 금융기관 응답
 - 공적 금융기관: 79개
 - 민간 금융기관: 88개 (은행 9개, 생명보험 16개, 손해보험 10개, 증권사 31개, 자산운용사 22개)
 - **추가 자료조사** |
 - ESG채권발행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에서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공시된 데이터 사용
 - ESG공모펀드의 경우, 모닝스타 디렉^{Morningstar Direct}과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자료를 참조했으며, 각 공모펀드의 ESG투자해당 여부는 투자설명서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닝스타가 자체적으로 판단
 - **종합분석 시 사용 데이터 및 방법** |
 - ESG투자의 경우, 투자 유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였으나, 위탁운용자산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수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은 ESG투자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
 - ESG채권발행의 경우, 설문조사와 '사회책임투자채권'에 공시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나, 채권발행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입력한 '채권^{SIN}'과 '채권명'을 비교하여 중복 데이터를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
- ※ 본 보고서는 아직 ESG금융의 '정의', '분류'등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금융기관의 ESG금융 활동에 대한 우열 및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ESG금융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설문조사에서도 ESG금융에 대한 별도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각 금융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부록. ESG금융 응답기관^{1,2,3}

1. 금년도 자료 제출기관만 표기. "미회신"기관 미표기
 2. 1: 대출/ 2: 투자/ 3: 상품/ 4: 채권발행
 3. 목표금액 설정기준: □투입금액 / △누적금액 / ○잔액기준 / ◇기타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목표여부	목표연도	목표금액	적용계획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여부
공적금융기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	2022년	-	X	-	X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	2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X	-	X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X	-	-	X	-	X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X	-	-	X	-	X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	2030년	-	X	-	X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	-	-	○	2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정안전부	X	-	-	X	-	X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X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X	-	-	X	-	X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	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X	-	-	X	-	X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X	-	-	X	-	X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X	-	-	X	-	X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	X	-	-	X	-	X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목표여부	목표연도	목표금액	적용계획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여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X	-	-	X	-	X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O	2022년	□ 23,500	O	1	O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X	-	-	X	-	X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미응답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X	-	X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X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X	-	-	X	-	X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X	-	-	X	-	X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2022년	○ 81,000	O	2	O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O	1	O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X	-	X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O	4	O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X	-	-	X	-	O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O	2030년	□ 330,000	O	1,2,3,4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X	-	-	X	-	O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X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X	-	-	X	-	X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X	-	-	O	2	O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O	2022년	□ △ 2,129	X	-	X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X	-	-	X	-	X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X	-	-	X	-	X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O	2030년	◇ 2,060,620	X	-	X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O	2026년	□ 1,695,000	X	-	O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	X	-	-	O	1,4	O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부	X	-	-	X	-	X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X	-	-	X	-	X
KDB산업은행	금융위원회	O	2030년	□ 132,000	O	1,2,4	O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목표여부	목표연도	목표금액	적용계획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여부
민간금융기관							
은행							
광주은행	JB금융그룹	X	-	-	○	1,2,3,4	○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그룹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X	-	-	○	1,3,4	○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2022년	□ △ 214,160	○	1,2,3,4	○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	2022년	□ △ 90,400	○	1,2,3,4	○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	2030년	□ △ 280,000	○	1,3,4	○
BNK경남은행	BNK금융그룹	X	-	-	○	1,3,4	○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	2024년	○ 273,815	○	1,2,3,4	X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그룹	○	2022년	◇ 13,821	○	1,2,3,4	○
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그룹	X	-	-	○	1,2	미응답
동양생명보험	종국다자보험그룹	X	-	-	X	-	○
메트라이프생명	미국메트라이프	X	-	-	X	-	X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그룹	○	2031년	□ 3,000	○	2	○
삼성생명보험	삼성그룹	○	2030년	○ 200,000	○	1,2,3	○
신한라이프	신한금융그룹	○	2022년	◇ 530	○	1,2,3	X
한화생명보험	한화그룹	○	2030년	◇ 55,000-65,000	○	1,2,3,4	○
흥국생명보험	태광그룹	X	-	-	X	-	X
ABL생명보험	중국다자보험그룹	X	-	-	○	1,2	○
AIA생명보험	AIA그룹	X	-	-	X	-	X
DB생명보험	DB그룹	X	-	-	X	-	X
DGB생명보험	DGB금융그룹	X	-	-	X	-	○
IBK연금보험	IBK기업은행	○	0	-	X	-	미응답
KB생명보험	KB금융그룹	○	2022년	○ 4,871	X	-	X
KDB생명보험	KDB산업은행	X	-	-	X	-	○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금융그룹	○	2022년	◇ 2,000	○	1,2,3,4	○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X	-	-	X	-	X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그룹	○	상품 '23년 / 투자 '30년	□ 상품: 매출 3조 / △ 투자 누적 10.5조	○	2,3	○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미응답	-	-	○	1,2,4	○
한화손해보험	한화그룹	○	2022년	◇ 1,000	X	-	○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X	-	-	○	1,2,3	○
흥국화재해상보험	태광그룹	○	0	-	X	-	X
DB손해보험	DB그룹	○	-	-	X	-	X
KB손해보험	KB금융그룹	○	2030년	○ 44,246	○	1,2,3,4	○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금융그룹	○	2025년	◇ 6,500	○	1,2,3,4	○
SGI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X	-	-	X	-	○
증권사							
교보증권	교보생명그룹	X	-	-	○	1,2,3,4	○
다올투자증권 ¹	다올금융그룹	X	-	-	○	1,2,3,4	○

1. 구 KTB투자증권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목표여부	목표연도	목표금액	적용계획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여부
대신증권	대신금융그룹	X	-	-	X	-	○
디에스투자증권		X	-	-	○	2,	○
리딩투자증권		미응답	-	-	X	-	미응답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그룹	X	-	-	X	-	X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	○	2025년	◇ 450,000	X	-	○
부국증권	한일그룹	○	2025년	○ 200	○	1,2,3	○
삼성증권	삼성그룹	○	2025년	◇ 100개	○	2,3,4	○
상상인증권	상상인금융그룹	미응답	-	-	X	-	X
신영증권		X	-	-	○	1,2,3,4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그룹	○	2022년	□△ 1,560	○	1,2,3,4	○
유안타증권	유안타금융그룹	X	-	-	X	-	X
유진투자증권	유진그룹	X	-	-	○	2,3	○
유화증권		X	-	-	○	2,	○
이베스트투자증권		X	-	-	○	2,	○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	X	-	-	X	-	X
케이프투자증권	케이프	X	-	-	X	-	X
코리아에셋투자증권		X	-	-	○	2,	X
키움증권	다우기술	X	-	-	X	-	X
하나증권	하나금융그룹	X	-	-	○	1,2,3,4	○
하이투자증권	DGB금융그룹	○	2022년	◇ 15,000	○	2,3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X	-	-	X	-	X
한화투자증권	한화그룹	X	-	-	○	2,4	○
현대차증권	현대자동차그룹	○	2022년	-	○	2	○
BNK투자증권	BNK금융그룹	○	2022년	-	○	1,2	○
DB금융투자	DB그룹	X	-	-	X	-	X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	2022년	-	○	1,2,3,4	○
KB증권	KB금융그룹	○	2024년	○ 15,295	○	1,2,3,4	○
NH투자증권	NH농협금융그룹	○	2025년	◇ 10,000	○	1,2,3,4	○
SK증권		○	2022년	◇ 54	○	1,2,3,4	○
자산운용사							
교보약사자산운용	교보생명그룹	X	-	-	○	3	○
다올자산운용 ¹	다올금융그룹	X	-	-	X	-	X
대신자산운용	대신금융그룹	X	-	-	○	2	○
디더블유에스자산운용	도이치뱅크그룹	X	-	-	○	2,3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X	-	-	○	3	○
멀티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그룹	X	-	-	X	-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그룹	X	-	-	○	2	○
베어링자산운용	매스뮤추얼	X	-	-	X	-	X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그룹	X	-	-	○	2,3	○
신영자산운용		X	-	-	X	-	○
신한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	X	-	-	○	3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	2022년	◇ 1,000	X	-	○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	2022년	-	○	2,3	○

1. 구 KTB자산운용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목표여부	목표연도	목표금액	적용계획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여부
트러스트자산운용		X	-	-	○	2,3	○
하이자산운용	DGB금융그룹	○	2022년	○ 6,370	X	-	○
한화자산운용	한화그룹	X	-	-	○	2,3,4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해상화재보험	X	-	-	X	-	X
흥국자산운용	태광그룹	X	-	-	○	3,	○
BNK자산운용	BNK금융그룹	○	2022년	○ 1,880	○	3	○
IBK자산운용	IBK기업은행	X	-	-	○	1,2	○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산업은행	X	-	-	○	3	○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금융그룹	○	2022년	◇ 3,400	○	3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3호
T. +82 (0)2 784 8780
minjoolee2020@gmail.com